

# 창원 자유 학교

자유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창원자유학교는  
답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질문을 함께 배우는  
학교입니다.



# 창원 자유 학교



“열일곱, 성적보다 성장이 필요한 나이”

## CONTENTS

### | 목 차 |

- 04 창원자유학교는? 고교학년제란?  
학교 현황
- 06 창원자유학교 학생이 말하는 창원자유학교?  
창원자유학교에 있는 것? 없는 것?  
창원자유학교 학부모가 말하는 창원자유학교?
- 08 2023학년도 교육과정 소개  
창원자유학교 PHOTO
- 10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창원자유학교는 이런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 12 창원자유학교의 하루  
창원자유학교 1기 글샘의 시와 그림
- 14 여행으로 보는 창원자유학교의 1년
- 18 창원자유학교 수업 이야기
- 30 창원자유학교 입학을 위한 Q&A



# 창원 자유 학교



## 창원자유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중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며 진로와 꿈을 찾아가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1년 과정의 자유학년제 학교(학력 인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 고교자유학년제란?

전환기에 놓인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교육과정과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1년 동안 자기를 발견하는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입시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유로운 도전과 경험을 쌓는 ‘에프터스콜레’ 개념의 교육과정입니다.

※ 에프터스콜레 : 에프터스콜레(Afterschole)는 덴마크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1년 과정의 별개의 학교입니다. 덴마크 아이들은 대개 기초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 과정을 선택합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능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학교’, ‘인생설계학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

| 구 분 | 교 사 | 주무관 | 계 |
|-----|-----|-----|---|
| 인 원 | 4   | 1   | 5 |

※ 담당 교과 : 국어, 영어, 수학, 역사(사회)



### 시설 현황

| 구 분 | 교무실 | 교 실 | 특별실 | 계 |
|-----|-----|-----|-----|---|
| 실   | 1   | 2   | 2   | 5 |

※ 특별실 : 심터, 체육관



# 창원자유학교 학생이 말하는 창원자유학교?



이렇게 오고 싶은 학교는 내 인생에서 처음이다.

고1로 입학해서 열여덟 살이 되는 학교다.

내가 만드는 학교, 내가 만드는 인생!

어서 와! 창원자유학교는 처음이지?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었어?

물랐지? 여기서 시작하면 돼.

내 생애 가장 특별한 1년!

나를 돌아보는 1년!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난 행복해.

창원자유학교에서  
난 행복해 ♥



## 창원자유학교에 있는 것?

- ☆ 우리들의 약속
- ☆ 빨강머리, 파랑머리, 노랑머리
- ◇ 생각과 이야기
- 네 번의 여행
- 😊 그리고 바로 나!

## 창원자유학교에 없는 것?

- ☆ 교칙과 교복
- ☆ 야간타율학습과 보충수업
- ☆ OMR카드와 컴싸
- 😊 오전에 끝나는 소풍
- 그리고 바로 너!

## 창원자유학교 학부모가 말하는 창원자유학교?



3년 동안 보내고 싶은 학교 ♡

아이야, 네가 행복한 학교면 엄마도 행복해~

꿈이 자라는 학교, 마음이 성장하는 학교, Good~

창원자유학교의 기적~^^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라는 중국속담도 생각납니다.

내 아이가 가진 자유를 일상에서 펼칠 수 있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신 선생님~

가치로운 일을 선택해서 혼자, 때론 친구와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한 아이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창원자유학교의 일상으로 아이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행복해하는

눈빛, 표정, 마음을 읽었습니다.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창원자유학교가 가진 행복의 일상이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3학년도 교육과정 소개

※ 상세한 내용은 12월에 예정된 2023학년도 교육과정설명회를 통해 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2023학년도 교육과정 안내를 2022학년도 일과표로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 < 2022학년도 일과표 >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 9:30~  | 아침 열기                    |              |              |               |              |
| 10:00~ | 보통교과<br>(통합사회)           | 보통교과<br>(수학) | 공동체회의        | 보통교과<br>(한국사) | 보통교과<br>(영어) |
| 11:00~ |                          |              | 철학           |               |              |
| 12:00~ | 프로젝트<br>(창체)             | 체육<br>(공통)   |              | 음악<br>(공통)    | 체육<br>(개인)   |
| 12:50~ | 점심시간                     |              |              |               |              |
| 13:50~ | 진로와 직업<br>* 행복마을학교<br>수업 | 프로젝트<br>(창체) | 보통교과<br>(국어) | 목학<br>(한국사)   | 동아리활동        |
| 14:50~ |                          | 보통교과<br>(과학) |              | 심리학           | 보건<br>* 걷기   |
| 15:50~ |                          |              | 음악<br>(개인)   |               |              |
| 16:50~ | 하루단기                     | 하루단기         | 프로젝트<br>(창체) | 진로활동<br>(창체)  | 하루단기         |
| 17:40~ |                          |              | 하루단기         | 하루단기          |              |



※ 창원자유학교의 모든 수업은 PBL을 기반으로 합니다. PBL(프로젝트 기반학습)은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질문, 주의 깊게 설계된 결과물과 과제를 둘러싼 집중적인 탐구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기르는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 창원자유학교는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과 관계성 향상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향합니다.



창원자유학교  
PHOTO



# 보건수업 (3기)



# 성장발표회 (4기)



# 수료식 (2기)



# 음악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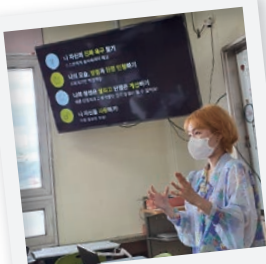
# 체육 (3기)



# 행복마을학교요리수업 (3기)



# 사람책 수업 (5기)



# 사람책 수업 (5기)



# 마을체험활동 (5기)



##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 ◆ **모집 인원** : 20명
- ◆ **교육 기간** : 2023년 3월 15일(수)~ 2024년 2월 29일(목)
- ◆ **신청 자격** : 도내 일반고(자율고 포함,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제외)에  
2023학년도 1학년으로 배정될 학생  
(통학이 가능한 학생)
- ◆ **제출 서류** :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보호자 의견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사본, 사교육불참서약서 등
- ◆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팩스(055-294-8212) 접수, 우편 발송,  
이메일(yyj-0317@hanmail.net) 전송(스캔한 파일) 중 택일
- ◆ **전형 일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
| 원서접수            | 2022년 12월 12일(월)~ 2022년 12월 23일(금)                           | 창원자유학교 |
| 교육과정<br>설명회     | 2022년 12월 17일(토) 11:00~13:00<br>2022년 12월 21일(수) 18:30~20:30 | 창원자유학교 |
| 서류심사 및<br>결과 통보 | 2022년 12월 26일(월)~2022년 12월 30일(금)<br>(정원의 1.5배수 이내)          | 창원자유학교 |
| 면접 심사           | 2023년 1월 2일(월)~1월 6일(금)                                      | 창원자유학교 |
| 합격자 발표          | 2023년 1월 9일(월)                                               | 개별 통지  |

**평가기준** 입학 동기와 의지(입학 동기가 학교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창원자유학교  
교육과정에 참여 의지가 약한 경우 정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세한 전형 요강 확인과 관련 서식 다운로드는 창원자유학교 학교홈페이지  
(<http://cwjayu-h.gne.go.kr>)에서 가능합니다.

## 창원자유학교는 이런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 ☒ 진정한 자유와 배움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싶은 사람
- ☒ 자신이 정한 목표와 과정에 따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
- ☒ 나누고 기여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해 보고 싶은 사람
- ☒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살았는지 알고 싶은 사람
- ☒ 물질 잡힌 발바닥으로라도 가던 길은 끝까지 걷고 싶은 사람
- ☒ 가끔은 돈 없이도, 휴대전화 없이도 기꺼이 살아보고 싶은 사람
- ☒ 자신의 틀을 먼저 깨봄으로써 세상의 틀을 깨보는 연습을 해보고 싶은 사람

## 창원자유학교의 하루

창원자유학교의 하루는

아침 9시 30분, 아침열기로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

때론 진지한 이야기 등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시를 읽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마주 앉아 서로를 만납니다.



오전엔 주로 교과 수업을 합니다(오후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등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재미있냐고요? 그럴 거라고 늘 생각합니다.

의미 있냐고요?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오후 수업은 주로

몸과 마음을 키우는 교양 수업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수업입니다.

혼자 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하고 학교 밖에서도 합니다.

성적 대신 성장이 있는 넉넉한 시간입니다.



## 등근 원

1기 글샘

등그렇게  
모여 앉은 모양새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서로를 듣게 한다

등근 모양새는  
우리에게  
주변을 살피라고  
모두에게 귀 기울이라고  
같이 나아가라고

허나 각자의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 봄, 시작여행



2020학년도 시작여행



2022학년도 시작여행



걷고 또 걷습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걷겠다는 마음으로 걷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세상이 너무 넓은 걸까요? 내가 너무 약한 걸까요? 힘은 드는데 왠지 모를 뿌듯함이 몰려오는 건 무엇일까요? 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누군가는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 세상을 만납니다. 그 세상 속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 봄 여행의 콘셉트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김병만이 있을까요? 식사는 최선을 다해 여행지(현지)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걷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여행엔 마니또가 있습니다.

## 여름, 농촌봉사활동



2022학년도 농활



2022학년도 농활



2022학년도 농활

6~7월의 여름을 제대로 만납니다.

종종 비가 왔지만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에서 장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논바닥이 장화를 잡고 놓아 주지 않습니다. 맨발이 푹  
푹 빠지는 논, 멋대로 자란 잡초를 뽑습니다. 혹시나 벼를 뽑는 게 아닐까 걱정  
하면서 잡초를 뽑습니다. 이것 김매기라고 한대네요. 창원자유학교에서는 처  
음 해보는 게 참 많습니다. 새참으로 먹는 미숫가루와 얼린 홍시는 정말 맛있  
습니다.

※ 여름 여행의 콘셉트는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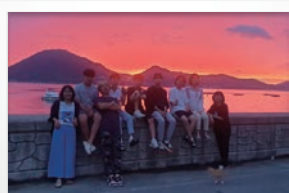
일할 때 일하고 쉬 때 평화롭게 쉽니다.

식사의 절반은 우리가 직접 준비하고,

절반은 여행지(현지)에서 준비합니다.



## 가을, 마을체험활동



2022학년도 마을체험여행



2022학년도 마을체험여행

2학기의 시작은 아직 오지 않은 가을을 만나러 갑니다. 도시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갑니다. 그 먼 곳은 섬이 아닐까요? 2022년 마을체험여행의 가치는 지루함,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사를 우리(학생들)가 준비했습니다. 메뉴부터 재료 구입까지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재료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최대한 학교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밥부터 반찬까지 모두 우리(학생들)가 준비한 삼시 세끼, 맛있어도 우리 책임, 맛없어도 우리 책임이었습니다. 지루함을 책임지는 한가로움을 느끼는 여행입니다.

※ 가을여행의 콘셉트는 <삼시 세끼>입니다. 하루 세끼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먹다가 잠시 놀기도 쉬기도 합니다.

## 겨울, 교과자유여행



2019학년도 교과자유여행



2019학년도 교과자유여행

수능 즈음에 우리는 교과자유여행을 떠납니다. 교과와 여행이 만나는 교과연계 체험학습, 즉 여행이 되는 수업이고 수업이 되는 여행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 밖 먼 곳으로 갑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음악, 미술, 체육을 다 만납니다. 각자가 만난 세상을 저녁밥을 먹으면서 함께 나눕니다.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며 채운 머리와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2018년 부산, 2019년 서울,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1박 2일을 하며 요리와 산행을 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멀리 가지 못하고 남해까지만 갔습니다.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다시 서울로 교과자유여행을 갈 수 있겠죠?

※ 교과자유여행의 콘셉트는 <알쓸신잡>입니다. 하루종일 세상을 배워서 늦은 밤까지 그 배움을 함께 나눕니다.



# 국어



창원자유학교 국어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글은 국어 수업 시간에 주어지는 학습지에 늘 실려 있던 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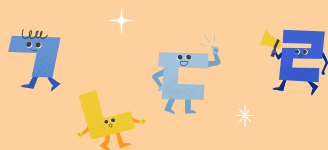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만나야 할 것은 점수와 등급이 아닙니다. 수업을 하기 전과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진 여러분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달라진 자신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새로운 교재를 만나고, 바로 옆과 앞의 친구가 가진 생각과 느낌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업은 시험을 치기 위한 수단이거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국어 수업에서 국어 내신 1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 중 누군가는 최하 등급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1등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높은 등

수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보다 낮은 등수를 받아야 하지만 배우는 즐거움은 누구의 즐거움도 빼앗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학습지는 한 장의 보물지도입니다. 물론 그 지도로 값비싼 보물을 찾을 순 없습니다. 그 보물지도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건 공기나 흙처럼 흔하디흔한 ‘말’과 ‘글’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을 잘 하고 잘 듣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글을 잘 읽고 잘 쓰는 사람도 드뭅니다. 제 수업이 여러분의 말과 글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만드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수업은 내가 모르는 걸 알게 해 주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아는 일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질문부터 깊이 만나고, 결국 새로운 질문으로 끝나야 좋은 수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배움은 학생이 몰라서 헤매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학생이 어디서 헤매는지 알아야 교사가 학생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손을 잡기 전에 학생들끼리 먼저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헤매기만 하고 길을 찾지 못한다 해도 길을 헤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맨 길이 언젠가는 다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습지가 1차 확인 4점, 2차 확인 4점, 그래서 총 16점짜리 학습지가 아니라 바로 ‘그 학생’의 학습지였으면 합니다. 깔끔하게 답만 정리된-그래서 16점이 될 수밖에 없는 학습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학습지이면 좋겠습니다.



# 영 어



2022학년도 영어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은, 1학기는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였고 2학기는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영어로 말해보면 됩니다. 써 보면 됩니다. 나에게 영어란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깨닫기 위해 서입니다. 모두의 답이 다릅니다. 2022학년도에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1학기 때 영어 프로젝트 이름은 ‘English is English’였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다시 뜻을 알아채는 과정을 줄이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알라딘’을 영어 자막 없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처음 영어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영화를 학생들과 함께 정한 것이 영어 수업의 몰입도를 높여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수업은 듣기 5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자막 보고 듣기-> 빈칸 채우기-> 해석하고 듣기-> 화면만 보고 듣기-> 따라 말하며 듣기) 단계별 듣기를 통해 자막 없이도 영어가 들리는 경험을 하며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물로 영화 더빙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표정에 맞게 감정을 넣는 더빙 작업은 영어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좋은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수업이 끝나면 배운 대본을 활용해서 새로운 영작을 했습니다. 무작정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대본이 있어서 영작하는 것에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 시험도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학생들의 대본을 영작하는 것이었습니다.



2학기 프로젝트 이름은 'Delicious English'입니다. 제대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여러 가지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겨울 여행 중 외국인과 이야기하는 미션을 프로젝트 결과물로 잡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떡볶이 요리 영상을 보고 스크립트를 공부한 후 각자 요리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말해보는 회화 연습도 했습니다. 회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 레시피 내용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요. 아직 5기 학생들은 서울 여행을 가기 전이라 대신 수료생들이 했던 미션 수행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영어를 제대로 사용한 후 짓던 학생들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5기 학생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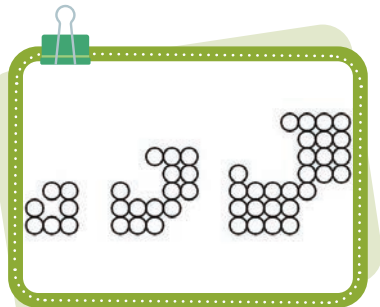


창원자유학교의 수학 수업은 ‘수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서 시작합니다. 수학은 세상의 당연한 모든 것에 대해 ‘그게 말이 돼?’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이 말이 됨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올해는 패턴과 프랙탈, 실험 영상 등을 재료로 추론을 통하여 수학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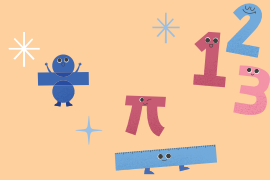
예를 들어 작은 원에 채워진 동전의 개수를 세는 실험을 보고 ‘보다 큰 원에는 몇 개가 채워질까?’를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해결 방법이 말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회의주의자가 되어 질문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내 말이 틀리면 어쩌지?’라는 내면의 걱정과 내 설명을 귀담아 들어 주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패턴이란 무질서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관통하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패턴을 통해 성장하는 규칙을 찾고, 그것을 문자로 된 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1, 2, 3차원, 도형, 관계 등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와 연결해 봅니다. 내가 보지 못한 아이디어는 친구를 통해 새롭게 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나 적용되는 규칙을 뽑아냅니다. 그것이 일반화, 추상화의 과정입니다. 일반화, 추상화가 왜 중요하냐구요? 그것을 통해 모든 구체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림1>에 대해 ‘패턴이 성장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보세요?’, ‘4번째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규칙, 식을 사용하여 패턴을 모델링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일반화에 다가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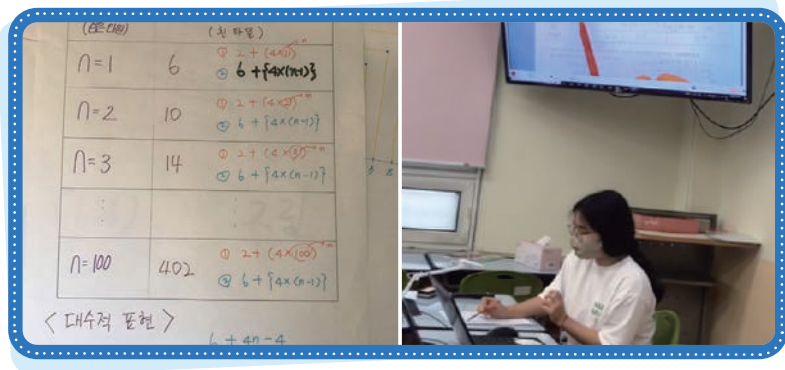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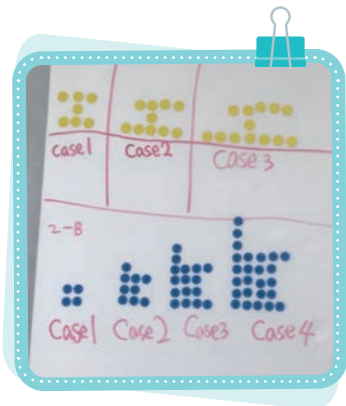


이후 다양한 패턴을 접하면서 스스로의 궁금함을 만듭니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현상에 대해 ‘그게 말이 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수학이니까요.

<사진1>은 ‘규칙(문자를 사용한 식)’과 ‘패턴’을 하나하나 연결하며 소통하는 모습이고



<사진1>



<사진2>

<사진 2>는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 보면서 ‘식’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지식을 하나하나 습득하는 과정도 익힙니다. 교과서를 정확하게 읽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력과정), 친구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출력과정)를 익힙니다.

이런 과정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공부는 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는 의미로도 이어지겠지요.

# 한국사



창원자유학교의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된 질문이 있습니다.

‘창원자유학교만의 한국사 수업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사 수업은 창원자유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국사 수업은 매년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현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원인을 찾아 그 앞 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해방 직후와 개항기의 역사 적 과제는 무엇이었는지를 찾아갔던 프로젝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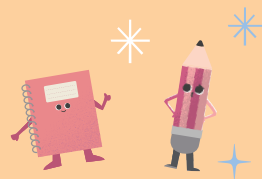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였기 때문에, ‘100주년을 왜,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1년 동안 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학기에는 100주년 기념화페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학기에는 ‘100주년의 역사적 과제 찾기’라는 주제로 대자보도 쓰고, 신문기사도 썼습니다.

2020년에는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를 역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1학기에는 지역사 수업을 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가 한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2학기에는 자서전 쓰기를 진행해서 실제로 학생 개인별 자서전을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다른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던



▲ 100주년 기념화페 만들기



▲ 직접 그린 자서전의 표지  
정의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역의 역사가 전체 한국사를 바꾸는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안다는 것, 이를 통해 중앙과 변방의 인식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들이 또래 학생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자유학교 학생들에게 더 큰 '자기사랑'과 '용기'를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는 황석영의 장편역사소설 <철도원 삼대>를 1년간 제대로 읽으며 '철도원 삼대로 한국근현대사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핵심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과거(식민지 잔재) 청산'이란 무엇일까?"**

매 시간 소설을 한 챕터씩 읽고, 모르는 단어를 익히고, 질문을 만들어 토론을 합니다. 소설 속 인물들 중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을 찾아 그들의 삶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등장 인물의 마음을 따라가 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서훈받지 못했던 마산 출신 김명시 장군에게 창원 자유학교가 드리는 훈장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에 김명시 장군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원자유학교의 한국사 수업에는 큰 덩어리의 '사건의 역사'가 아닌 그 속의 '사람의 역사'를 배우는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학기 지역사 공부는 2학기 '자서전 쓰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1학과 2학기의 핵심 가치는 '자기사랑'이었습니다. 길게 보면 지역사와 자서전이 '자기사랑'이라는 가치로 연결된, 1년 과정



▲ 우리가 서훈하기(김명시 장군)

# 통합사회



창원자유학교의 통합사회 수업은 교사 4명이 번갈아 진행을 합니다.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수업하는데, 교사 1명이 진행하면 나머지 3명의 교사는 모둠 속으로 들어가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모둠활동도 함께 합니다. 첫해부터 제일 먼저 전 교사가 함께 수업에 들어간 교과입니다. 전공 교과가 아니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열심히 준비해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어쩌면 전공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른다는 통합사회 교과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환경, 미디어, 문화 변동, 돈과 세금, 행복’ 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2021년에도 ‘스마트폰, 인권, 환경, 돈과 세금, 편견, 차별, 정의’ 등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간 진행해 온 다양한 주제의 통합사회 프로젝트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주제는 아무래도 ‘환경’수업입니다.

창원자유학교에 와 보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정말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음료수를 먹고 나면 통을 깨끗이 씻어서 비닐을 벗겨 따로 배출합니다.

빨대는 일반쓰레기로 버리구요. 수업을 통해 빨대가 일반쓰레기라는 걸 알고부터는 가능하면 빨대를 안 쓰려고 합니다.



▲ 점심시간에 학교 곳곳의 쓰레기를 줍는 학생들



창원자유학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함께 학생들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주제가 ‘스마트폰’입니다. 학생들이 갈수록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원인들 중에 스마트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의 폐해를 알고 스스로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5년 동안의 통합사회 수업을 돌아보면 자기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수업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혹은 만나고 싶지 않았던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만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것,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것,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이 창원자유학교 통합사회 수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 과학



과학은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과학입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네 가지입니다.

##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유행성 만들기입니다.

관심 있는 사물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 음식 등, 관심 있는 그 사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보고, 새롭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크림, 토양의 산도, 짜장면 등과 관련된 과학원리를 찾고, 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탐구합니다.

## 두 번째 프로젝트는 달고나의 비밀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에서 출발합니다. 이 음식을 구성하는 물질, 이 물질들을 이루는 구성 원리,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토마토, 딸기, 초콜릿 등에 숨어있는 원소와 맛, 성분을 분석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세 번째 프로젝트, 생명입니다.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명의 시작은 무엇인가?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생물에게 적합한 환경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나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내가 살면서 나의 생태계는 어떻게 가꿀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네 번째 프로젝트는 <어린왕자와 나>입니다.

책을 읽고, 관심 있는 주제와 생각나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탐구해보고, 나의 삶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봅니다.

단위, 벼락, 바람, 인간이 1주일 동안 살려면 필요한 물의 양, 우주선, 비행기, 어린왕자는 어떻게 왔을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태계들,

기준, 중력, 식물이 자라는 조건, 장미의 가시, 어린왕자가 사는 행성의 대기권, 중력, 환경 등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수행평가 포트폴리오로 탐구노트를 작성하고, 서술형 시험으로 평가합니다. “생명에 대해 서술하시오”와 같은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시도해 볼 수 있고, 재미가 있어서 좋습니다. 늘 실수하고 다시 해 보고, 돌아보면서 즐겁고 행복해서 함께 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궁금할 때, 생각이 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즐겁게 깊이 탐구하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배움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는 시간이 길,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1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학생도 창원자유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나요?**

A 아닙니다. 경남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반드시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적이 있어야 창원자유학교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받은 후 다시 원적교(입학한 학교)로 복교할 수 있습니다.

**Q2 창원자유학교에 가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A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통합사회와 같은 교과외 경우 일반 학교와 같이 석차 및 등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창원자유학교에서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교양교과를 많이 배웁니다. 교양교과 학생생활기록부에는 점수나 등급 없이 교과 특기사항에 서술형으로 학생의 성장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창원자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원적교 복교 후 교육과정 이수나 이후 진학과 진로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합니다.

**Q3 창원자유학교에는 어떤 학생들이 오나요?**

A 창원자유학교는 특정한 유형과 성향의 학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생들이 모입니다. 보통의 일반고 1학년의 교실 구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Q4 보통교과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보통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한국사 6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단, 각 교과별로 4단위로 축소해서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한국사는 6단위). 1학기과 2학기에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한국사, 과학을 매주 각각 2시간씩(한국사는 3시간) 배워서 이수합니다.

#### Q5 창원자유학교의 학교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창원자유학교의 일과는 9시 30분 등교, 5시 전후 하교입니다. 별도의 교복은 없으며 자유로운 복장으로 생활합니다. 두발, 용모 제한 규정 또한 없습니다.

#### Q6 창원자유학교를 1년 동안 다닌 후,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학생이 희망할 경우, 1학년 복교(정확하게는 자퇴 후 재입학)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창원자유학교의 교육활동은 삭제됩니다.

#### Q7 창원자유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일반 학교로 복교할 수 있나요?

A 창원자유학교 학기 중에도 학생이 희망하거나 복교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과 협의의 시간을 가진 후 원적교로 복교할 수 있습니다.

**Q8 창원자유학교를 수료하고 복교했을 때 학업 성취에 어려움은 없나요?**

A 창원자유학교는 지식 교과 위주의 수업이 아니므로 일반고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보면 적응하는 데 개인차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자유학교에서 이론 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상과 학업을 꾸려가며 자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창원자유학교의 모델이 된 서울 오디세이학교의 경우나 창원자유학교 1기, 2기, 3기 수료생 중에서도 1년간 형성된 주체적 학습 태도를 바탕으로 복교 이후 학업 성취 향상을 보인 학생이 많이 있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Q9 창원자유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원적교에서 위탁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입 고지하고, 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원적교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창원자유학교에서는 별도의 수업료나 교육비용 등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급식비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지원됩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등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여행이나 체험활동 경비, 체험활동 시 필요한 재료비(강사비는 내지 않습니다)는 최대한 학교 예산으로 처리하되 학생 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원자유학교  
memo

창원  
자유  
학교

창원자유학교  
memo

창원  
자유  
학교



고교자유학년제



친환경 종이와 공기로 인쇄하였습니다.

# 창원자유학교

“열일곱, 성적보다 성장이 필요한 나이”

오시는 길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2길 24 (창원예술학교 4층)  
창원자유학교 ☎ 055-294-8211)

<http://cwjayu-h.gne.go.kr> \*검색창에서

창원자유학교

